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2장. 결론: 정보법학과 정책의 과제들

(...중략...)

만일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진정으로 인류 개발의 세 측면에서 현대사회에 전환을 초래하는 변곡점(變曲點)이라면, 그 이유는 지배적 지위를 차지했던 전유권과 시장 기반의 지식생산, 정보생산, 문화생산을 뒤엎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 종전에는 지배적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들이 권력을 보유했지만 앞으로는 개인들과 사회적 집단들의 혼합체(mixture)에게로 부(wealth)와 권력(power)의 재분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생산적 사회적 관계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것을 도구(tools)로 충분히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권력이 옮겨갈 것이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주요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들은 기술적 진보의 내적 논리(internal logic)에 따라서 일어나도록 결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컴퓨터 연산뿐 아니라 특히 저장장치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제조기술이 우연히 등장하여 정보생산과 교환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기술적 조건을 창출했던 것이다.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도입은 기존의 시장, 기술, 사회적 실행의 실질적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지금에 와서는 널리 분산되어 대규모로 진행되는 제도적 전투의 대상이 되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을 이루는 물질적 요소들의 조직화(organization)와 법적 역량(legal capabilities)을 둘러싸고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 브로드밴드 인프라는 모두 사유화될 것인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적 인프라의 소유자는 어느 정도나 메시지의 전달을 통제하려 할까? 이와는 반대로 이용자들이 소유하는—특정인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통제되지 않는—최초이자 최후의 수단으로 오픈 무선 네트워크를 허용해야 할까? 유선(wired) 인프라 사유화의 광범위한 확대, 그리고 디지털 장치들을 배타적 표준(exclusivity-respecting standards)에 기계적으로 따르게 만들려는 할리우드와 음반 산업계의 압력은 기술적, 조직적 시스템을 전유적 전략을 조장하는 닫힌(closed)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오픈 무선 네트워크와 디지털 장치들—특히 개인 컴퓨터—분야를 선도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개방형 표준(open standards)을 따르고 있다. 두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종 사용자 장비의 제조업자들은 가치있는 제품들을 만들는데 역점을 두므로,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general-purpose platforms)을 제공한다. 범용 플랫폼은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s)을 위한 시장지향적 활동 및 전유적 소비(proprietary consumption)를 위한 생산적 공유에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논리적 층위의 흐름을 살펴보자. 기술적 커뮤니티가 준수하는 개방형 표준의 윤리, 오픈소스를 이용한 인류개발과는 비정치적 사촌에 속하는 프리 소프트웨어의 창발, 다른 한편으로는 암호 해킹과 동료기술(peer-to-peer technologies)을 뒷받침하는 반(反)권위주의 운동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개방형 논리적 층위를 향해서 전진 중이다. 반면, 인터넷을 관리하려는 콘텐츠 업계의 활동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DMCA, 데스크톱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저작권 침해기술을 근절하려는 법원과 입법자들의 적극성 등이다. (이용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분명히 얻고 있다. 그러나 CD 구입 비용을 아끼려고 최신곡들을 복제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경우조차도 불법으로 여겨진다.) 이 요소들은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반드시 필요한 논리적 자원(logical resources)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는 제도적 제약의 주요한 근원이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콘텐츠 증위에서는— 현존하는 정보·지식·문화로 채워진 광범위한 영역— 상당히 체계적 입법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는 이와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법률이 배타권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지배력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길어졌고, 다양한 이용형태들과 모든 가치있는 이용의 구석구석 까지도 권리 범위로 해석되고 있다. 상표권은 더 강해졌고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특허권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권리 행사에 폭넓은 여지가 주어졌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져 배타적 전유권에 기반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생산에 유리하도록 제도적 생태의 편향(skewing)을 유도한다. 콘텐츠 증위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확장되고 강화되는 흐름의 근원을 살펴보면 초과 이윤을 원하는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사회적 경향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비시장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정보경제 및 공유 윤리(ethics of sharing)가 확대되는 경향이 그것이다. 막대한 정보와 지식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나누고, 커뮤니티의 실행에 참여하려는— 이를 통해서 타인의 후속적 창작이 가능하다—의욕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도적 생태를 전유적 비즈니스 모델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사법적 압력들은 사회적 실행의 창발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책 전체에 걸쳐 서술하는 사회적 생산의 실행이 가능한 풍부한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번성하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의 핵심적 공유 인프라 및 정보생산과 교환을 위한 자원들이 필수적이다. 새롭게 내놓은 표현(statement)을 기호(encode)화하여 커뮤니케이션하고 수신하는 과정에는 물리적 자원, 논리적 자원, 콘텐츠 자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이 자원들은 합법적, 불법적 경로와 계획적, 비계획적 출처의 혼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영역이 확연히 다른 산업들(통신,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연결의 제공, 공공 및 민간부문 정보와 문화의 출간)이 보이는 궤적의 우연성 덕분에 활용이 가능하다. 각기 다른 규제적 틀 아래에서 각 산업이 영위되어 왔으므로 자원을 활용할 여지가 생겨났다. 이들 자원의 일부는 합법성이 의심되거나 불법적 실행들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P2P 파일 공유만 하더라도 수 천만 인터넷 이용자들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수반된다. 그렇지만 간단한 인용(quotations), 동영상 클립의 이용, 섞어 만들기 방식(mix-and-match) 등 창조적 실행은 비시장 생산의 확산을 복돋우고 있다. 공정이용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으므로 이런 이용형태는 공정이용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두드러진 흐름은 정보생산과 정보교환의 양식으로 공유제 기반 실행들이 인식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리 소프트웨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자유로운 논문 간행을 규정한 새로운 국립보건원(NIH)의 가이드라인, 새로운 오픈 아카이브를 통한 공유, 사서들의 활동들, 많은 커뮤니티들의 실행은 불확정적 사실에 불과하던 비시장 생산방식을 자기의식적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앞으로 정보와 문화가 자유로운 공유운동(sharing movements)을 통해 생산되는 정보와 지식으로 채워지고, 오픈 라이선스 기법(open-licensing techniques) 모델이 널리 이용된다면 시장 영역과의 갈등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세기에 생산된 정보와 문화적 자료들과 마찰의 여지는 여전하겠지만 21세기에 생산된 정보와 지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래 창조자들과 이용자들에게 기꺼이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사회문화적 흐름이 지속된다면, 콘텐츠 자원에 대한 접근성 덕분에 비시장 생산에 참여하기 위한 장벽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제도적 생태와 사회적 실행은 복잡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산업정보경제의 생산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활동들이 전유적 생산(proprietary production)에 유리하게 제도적 빗장을 걸게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1990년대 미국, 유럽, 세계 전역에서 일어났던 반발보다 훨씬 거대한 사회적 저항이 정보환경을 추가적으로 사유화(enclosure)하려는 움직임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회적 운동은 비시장 영역의 플랫폼, 도구 제작자들,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재설정한 거대한 기업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보호를 위해 개인용 컴퓨터가 헐리우드가 설정한 표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이 제출된다면 IBM, 휴렛팩커드(Hewlett Packard), 시스코(Cisco)는 Public Knowledge 같은 NGO와 함께 어깨를 걸고 의회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실제로 헐리우드가 그록스터(Grokst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저작권 침해기술의 개발자들에게 기여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면 연방대법원에 요청하자 인텔(Intel), 미국가전협회(CEA), 버라이즌(Verizon), SBC, AT&T, MCI, 선 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s) 뿐만 아니라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 미국소비자연합(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소비자 연맹(Consumers Union), Public Knowledge도 법정 조연자 의견서들을 제출하고 나섰다.

인클로저를 지지하는 법률이 하나 또는 다수의 사법적 관할에서 입법화되어도 강력한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추동력이 결합된 반발의 흐름을 일반적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기득권자들의 주장 가운데 도덕적으로 가장 설득력이 있으며 법적으로도 완전하게 대응했던 P2P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막기가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그러므로 법률을 통한 통제의 시도들은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비트(bits)는 네트워크 정보환경의 흐름을 이루므로 특정한 비트의 모음을 별도의 완성재로 판매하려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유지하고자 법률을 동원하여 이런 사실적 특성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의 존재는 기업들과 개인들이 무엇을 판매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개변수(parameters)를 형성한다. 만일 냅스터(Napster)가 합법적으로 수용되었다면 현재 실제로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보다 훨씬 많은 인터넷 인구가 파일 공유를 이용하리라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방지하는 장치(anti-circumvention device)의 법적 보호나 공정이용 인정범위의 축소 등을 원하는 기득권자의 주장은 정책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당히 빈약하다. 법률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형성하려는 시도도 이와 동일한 수준의 평범한 성공을 거둘 수 있까? 이는 대답하기에 더 어려운 질문일 것이다. 이 책이 네트워크 환경의 제도적 생태를 논의하는 목적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다.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지난 십 년에 걸쳐 경험했고 다음 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게 분명한 수 많은 모습의 다양한 범주의 정책적 전투들을 이해하는 도덕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이 혼자서 또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세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형성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근본적 전환의 한복판에 와 있다. 산업경제의 경제활동에 의해서 오랫동안 억눌리던 사회적 실행의 패턴은 지난 한 세기 반에 걸쳐 지배적이었던 산업정보경제에 비해 더 중요한 위치로 부상했다. 사회적 실행의 창발은 선진국가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자유로운 공헌의 핵심에 진정한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가져온다. 개인적으로 또는 느슨히 연결된 타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비전유적 정보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공유재 기반의 정보생산은 20세기 산업정보경제와 진정한 단절(discontinuity)을 나타낸다. 커다란 가능성과 함께 불확실성도 역시 수반된다. 시장 기반의 기업들은 새로 창발하는 비전유적 정보생산 현상을 수용할 공간을 어떻게 찾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할까? 그 방법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수용한 IBM, 게임 유저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몰입형 엔터테인먼트를 수용한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슬래쉬닷(Slashdot) 이용자들을 위해 플랫폼을 개발한 오픈소스 테크놀로지 그룹(Open Source Technology Group) 등의 사례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반면, 이 책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에 고의적으로 손상된 파일을 집어넣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섰던 사례도 존재한다. 법률과 규제는 새로이 창발하는 정보생산 시스템을 둘러싼 전투들이 벌어지는 중요한 전장(戰場)을 형성한다. 우리는 이 전투들을 관찰하고,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로비스트로서, 변호사로서 또는 운동가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선택하고 전투에 참여한다. 나아가 입법자로서, 판사로서 또는 국제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Benkler, Yochai 저· 최은창 역 (2014).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협약의 협상자로서 법적 전투들을 실행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우리의 행동에 걸려있는 규범적 이해관계 (normative stakes)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정보· 지식· 문화를 창조하고 교환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 변화의 기회를 통해 우리는 21세기를 개인에게 더 큰 자율성을, 정치 단체에는 더 큰 민주성을, 사회에는 문화적 자기성찰과 인적 연결(human connection)을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세기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물질적 기회의 활용을 차단하는 거래의 장벽을 부분적으로 없앨 수 있고, 전 세계 인류 개발의 상황을 개선할 수가 있다. 이 변화들은 아마도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진정한 변환(變換)의 토대가 될 것이다. 어쩌면 단지 인간의 삶을 소규모로 개선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 비록 그렇다고 해도 인간의 후생, 인류 개발, 자유를 가치롭게 여기는 모두가 네트워크 정보경제를 열렬히 받아들여야 하는 정당성은 충분하다.

-끝-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자와 번역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